Psyché, M. 47

- □□

정보

César Franck: Psyché, M. 47
작곡가: César Franck (1822–1890)
작품명: Psyché, M. 47 (FWV 47, CFF 129)
장르: 독창 ·혼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3부 교향시
작곡 시기: 1886년 착수, 1887–1888년 완성
초연: 1888년 3월 10일, 파리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Salle Érard, Franck 지휘
IMSLP: https://imslp.org/wiki/Psych%C3%A9_(Franck,_C%C3%A9sar)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sych%C3%A9_(Franck)

César Franck의 Psyché, M. 47은 아풀레이우스의 프시케와 에로스 신화를 프랑스어 합창 ·관현악으로 옮긴 대형 작품이다. 프시케의 잠과 납치, 에로스의 정원, 금기를 어긴 뒤의 고난과 화해가 세 부분으로 이어지며, 합창은 인물을 계속 연기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사건을 논평한다. Franck가 원전에서 네 관현악
장면을 따로 골라 만든 Fragments pour orchestre가 널리 연주되면서 , 합창을 포함한 전곡과 순수 관현악 발췌판이 서로 다른 작품처럼 유통되기도 한다.

개요
Franck는 1886년 여름 이 신화에 착수했고, 1887–1888년에 세 부분과 합창을 완성했다. 대본은
아풀레이우스의 Metamorphoses를 바탕으로 Sicard와 Louis de Fourcaud가 프랑스어로 각색한 것으로 소개되며, 일부 서지 자료는 두 사람의 정확한 역할을 유보한다. 원전 신화의 세부를 모두 무대에 옮기기보다 프시케가 사랑을 얻고, 의심으로 죄를 지으며, 고난을 통과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다.

초연은 1888년 3월 10일 파리의 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열렸다. 작품은 Vincent d’Indy에게 헌정되었다 . 이름은 교향시이지만 혼성 합창이 들어간 세속 오라토리오와도 가깝고, 합창이 나오는 위치가 장면의 논평과 전환을 표시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합창 ·피아노 축약판은 19세기 말 먼저 유통되었고 , 관현악 발췌판은 Franck 사후 1900년 파리의 O. Bornemann에서 네 악장으로 출판되었다 . 원전 전곡과 Fragments pour orchestre는 같은 M. 47 또는 FWV 47을 사용하지만 , 편성 ·시간 ·장면 수가 다르다. 음반 제목에 Fragments, orchestral excerpts, Psyché 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면 두 판을 구별할 수 있다.

소요 시간

합창을 포함한 전곡은 약 45분에서 한 시간 미만이며, 공연의 종결과 템포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 관현악 발췌판은 네 악장을 합쳐 대체로 25–26분이다. Jean-Luc Tingaud의 Naxos 전곡은 약 45분, Daniel Barenboim과 Jan Latham-Koenig의 발췌판은 25분 안팎으로 소개된다.

편성

성악: 혼성 합창, 장면에 따라 여러 독창자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4
금관: 호른 4, 트럼펫 2, 코넷 2, 트롬본 3, 튜바
타악기와 기타: 팀파니, 하프 2
현악: 현악 5부

합창이 전곡 내내 계속 울리는 것은 아니다. 제 1부는 관현악으로 시작하고, 제 2부의 가운데 장면에 합창이 나타나며, 제 3부에서는 두 장면 모두 합창이 참여한다. 이 배치는 독창과 합창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오페라보다 고대극의 코러스에 가깝게 들리는 이유다.

악장별 구성

제 1부: 프시케의 잠과 제피르

Sommeil de Psyché 는 잠든 프시케가 사랑을 꿈꾸는 장면을 관현악만으로 그린다. 하프와 목관, 현악의 긴 선율이 부드러운 화성 안에서 이어지며, 아직 현실에 닿지 않은 내면의 공간을 만든다. 이어 Psyché enlevée par les Zéphirs 에서 제피르의 바람이 프시케를 에로스의 세계로 옮긴다. 빠른 움직임과 가벼운 음색이 첫 장면의 정적인 잠과 대비된다.

제 2부: 에로스의 정원
Les jardins d’Éros 는 프시케가 사랑의 정원과 에로스의 세계를 마주하는 중심 장면이다. 합창은 인물의
대사를 직접 대신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두 연인의 결합과 신화적 공간을 둘러싼다. 첼로와 중저음 현이 넓은 선율을 받치고, 목관과 하프가 섬세한 빛을 더해 관현악의 감각적인 면을 드러낸다.

제 3부: 금기, 고난과 화해

프시케가 에로스의 얼굴을 보아 금기를 어긴 뒤, 사랑의 정원은 고난의 공간으로 바뀐다. 합창은 프시케의 불안을 논평하고, 독창과 관현악은 이별과 방황을 긴 호흡으로 이어 간다. 마지막 Psyché et Éros 에서 에로스의 용서와 재결합이 이루어지며 ,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상승해 신화적 화해를 닫는다.

전곡을 들을 때 제 3부의 합창이 빠지면 앞의 두 관현악 장면만 남는 Fragments와 결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Bachtrack의 2016년 공연 평론은 합창을 프시케의 고난과 에로스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설명하는 목소리로 들었고, 이 장면 배치를 작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관현악 발췌판 Fragments pour

orchestre

Franck는 원전에서 네 관현악 장면을 떼어내 별도의 모음곡으로 정리했다.

1. Sommeil de Psyché — Lento
2. Psyché enlevée par les Zéphirs — Allegro vivo
3. Les jardins d’Éros — Poco animato
4. Psyché et Éros — Allegretto modéré

이 모음곡에는 프랑스어 텍스트와 합창이 없다. 프시케의 꿈, 이동, 사랑의 정원, 재결합이라는 관현악 장면만 남기므로 25분 안팎의 순수 교향시처럼 들린다. 반면 전곡은 죄와 용서의 장면, 합창의 논평, 독창자들의
프랑스어 선율을 포함해 신화의 진행을 더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음악적 특징과 순환성
Franck는 반음계적으로 움직이는 화성과 긴 선율, 하프와 목관 ·현악의 섬세한 색을 결합한다. Repertoire Explorer는 Les Éolides의 주요 주제가 Psyché에서 새로운 재료와 얽혀 되돌아온다고 분석한다. 한 장면의 선율이 다른 장면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면서 프시케의 꿈과 죄, 고난과 화해가 음악적으로 연결된다.

합창은 사건을 설명하는 해설자가 아니라, 신화의 바깥에서 경고와 위로를 건네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작품은 교향시의 관현악적 연속성과 오라토리오의 합창 구조를 동시에 갖는다. 다만 ‘Debussy를 예고한 작품 ’이라는 표현은 후대 연구와 평론의 해석으로, 직접적인 영향 계보를 뜻하지 않는다.

초연과 수용
1888년 초연은 Franck가 직접 지휘했고, 이후 1890년 파리 Concerts Colonne에서 전곡이 다시 연주되었다 . 그러나 전곡보다 네 관현악 발췌가 훨씬 자주 무대에 올랐다. 관현악 발췌는 짧고 성악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교향악 프로그램에 넣기 쉬웠고, 그 결과 Psyché가 처음부터 합창 없는 작품이었다는 오해도 생겼다.

Jean-Luc Tingaud의 2018/19년 Naxos 전곡 녹음은 합창 세 장면을 포함한 약 45분의 드문 완주 기록이다. Daniel Barenboim과 Jan Latham-Koenig의 발췌 녹음은 각각 25분 안팎의 관현악 모음곡으로 , Franck의 감각적 선율과 하프 ·목관의 색채를 집중해서 들려준다. 전곡과 발췌판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두 가지 편성으로

보는 것이 좋다.

주요 레코딩

Daniel Barenboim / Orchestre de Paris (1976): 네 관현악 발췌를 풍부하고 몽상적인
색으로 연주한다. MusicWeb은 감각적인 화성과 관능적인 분위기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템포가 느슨하다고 보았다.
Jan Latham-Koenig / 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2001): 약 25분의 발췌판으로 , 따뜻한 현악과 섬세한 관현악 팔레트를 선명하게 들려준다.
Tadaaki Otaka / BBC National Orchestra of Wales (Chandos): 합창 ·관현악 원전과
발췌판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자료다. 합창판은 프시케와 에로스의 결말을 포함해 더 긴 서사를 제공한다.
Jean-Luc Tingaud /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RCS Voices (Naxos, 2018/19): 합창 세 장면을 포함한 약 45분 전곡이다. 넓은 선율과 파스텔 같은 관현악 색을 함께 살린다.

주요 자료

Bru Zane Mediabase, Psyché: 아풀레이우스 각색, 작곡 ·초연 연대, Franck의 헌정과 세 부분.

Repertoire Explorer, Psyché: 합창 원전과 네 악장 관현악 발췌의 관계, 순환 주제와 판본 정보.

IMSLP, Psyché: M. 47/FWV 47/CFF 129, 공개 악보, 편성과 Bornemann 발췌판.

MusicWeb International, Barenboim: 1976년 관현악 발췌 녹음의 시간과 해석.

MusicWeb International, Latham-Koenig: 2001년 발췌판의 서정성과 관현악 색채.

Classical Music, Otaka·Kazandjiev: 합창 원전과 관현악판을 함께 다룬 녹음 비교.

Classical Music, Jean-Luc Tingaud: 2018/19년 전곡 ·발췌 녹음의 색채와 균형.

Bachtrack, Tingaud·Krakow: 세 부분과 합창 장면을 포함한 전곡 공연 리뷰.